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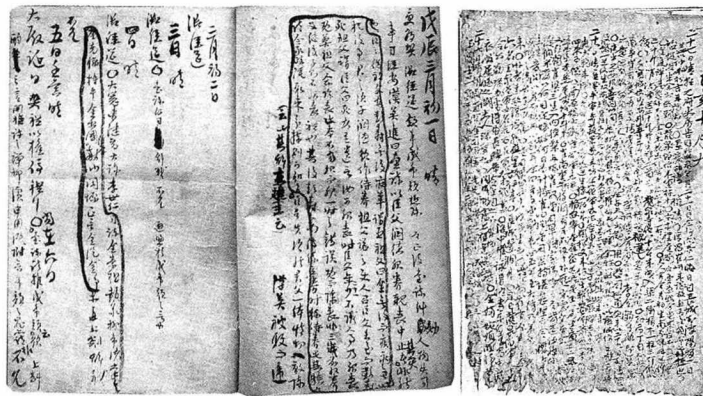
# 양반 실상 전해주는 개인일기들

《충재일기》·《미암일기》·《쇄미록》 등... 실록편찬에도 이용

이야기가 뒷걸음치는 느낌이지만, 얼마전에 우리말로 번역돼 나온 일본의 한국사학자 미야자마 히로시(49, 도쿄대 교수)의 《양반》(부제:이조사회의 특권계층)이란 책은 일본의 독자를 상대로 쓴 책임에도 치밀한 자료분석과 현장탐사로 읽는 재미가 쏠쏠했다. 경북 봉화군에 세거(世居)하는 세칭 '닭실권씨(西谷權氏)'의 경우를 모델로 조선시대 양반의 형성과정과 경제적 배경, 양반사회의 유교적 전통 등을 파헤친 이 책에서, 저자는 특히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쇄미록(懷尾錄)》과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를 분석자료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닭실권씨' 마을의 입향조(入鄕祖)는 중종 때 우찬성 벼슬을 지낸 권발(權發, 1478~1548)이다. 일찍이 기묘사화(1519)에 연루되어 10년간이나 야인(野人) 생활을 했던 그는, 명종 초에 정치적인 음해사건에 말려들어 평안도 삭주(朔州)에 유배됐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권발은 1507년부터 1518년까지 12년간의 관직생활에서 매일매일 겪은 사건을 적은 《충재일기(熊齋日記)》(전6책·보물 261호)를 남겨놓고 있는데, 자신의 공적인 활동만을 기록하고 있어 읽는 재미는 없지만 《중종실록》을 편찬할 때 기초자료로 크게 이용되었을 정도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특히 문장이 유려할 뿐 아니라 필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미암일기》(전12책·보물 260호)는 선조 때의 학자로서 이조참판을 지낸 유희춘의



권발의 《충재일기》(보물 261호·왼쪽)와 유희춘의 《미암일기》(보물 260호) 원본.

일기인데, 조선시대의 개인일기로서는 가장 방대한 것이다. 이 일기는 그가 중앙 관직에 있던 1567년(선조 1) 10월부터 1577년 5월까지 약11년간 자신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작은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당시 사대부들의 생활상은 물론 사회·경제·문화·풍속 등을 연구하는 데 큰 몫을 한다. 이 《미암일기》도 《선조실록》을 편찬할 때 크게 쓰였다.

《충재일기》나 《미암일기》는 특히 조선시대의 기본사료인 《승정원일기》(㉔회 참조)의 선조 이전 것이 임진왜란(1592)때 불에 타 없어졌으므로 더욱 사료로서의 비중이 크다. 이들 일기의 수고본(手稿本)이 각기 경북 봉화와 전남 담양의 문중에 보존, 국가의 '보물'로 지정돼 있다. 그중 《미암일기》는 지난 4월 담양향토문화연구회장 이해섭(李海燮)씨의 5년여에 걸친 노력으로 번역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신문이 전한 바 있다.

한편 오희문의 《쇄미록》은 임진왜란을 전

후한 10년간(1592~1602)의 난중 피난일기로, 이 시리즈의 ㉔회(제220호)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왜란이 일어나기 다섯 달 전에 전라도 장수(長水)현감으로 있는 처남을 찾아가다가 왜란을 만난 오희문은, 충청도 임천(林川)으로 옮겨 그곳에서 4년간의 피난생활을 보낸다. 1597년 그의 일가는 아들 윤겸(允謙·뒤에 영의정)이 현감으로 있는 강원도 평강(平康)으로 옮겨, 여기서 다시 4년간의 피난생활을 계속한다. 그가 서울로 돌아온 것은 1601년 2월.

《쇄미록》은 그 10년간에 보고 듣고 겪은 크고작은 일들을 상세하게 적고 있는데, 특히 유교적 전통에 쫓은 양반의 일상생활이 극명하게 묘사돼 있어, 《양반》의 저자는 독립된 한 장(제5장)을 이 일기에 할애하고 있다. 《쇄미록》은 친필 수고본으로 전하다가 1971년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활자본(한국사료총서)으로 간행된 바 있고, 1990년 오씨 추탄공파 문중에서 이 책 번역으로 출간(비매편)됐다.

# 출판저널

통권 제225호 / 1997년 11월 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마정미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2,000 K

매월 5일과 20일  
 독으로 받아  
 본사

출판저널  
 출판저널



출판(대출) 0182310-01 97.11.22  
 621~3

## “출판쟁이 20여 년에 느는 건 고민뿐인데...?”

- ❖ 칸별만 던져 주면 원고에, 편집까지 해 주는 곳 없을까?
- ❖ 쓸 만한 원고나 기막힌 기획을 해 주는 곳 어디 없을까?
- ❖ 제대로 번역하고 문장 다듬어서 편집까지 해 주는 그런 곳 말아야?
- ❖ 표지도안·신문광고·신문안내·시장조사까지 해 줄 수 있는 곳이면 더 좋으데...
- ❖ 구구하게 설명 안 해도 눈빛으로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곳 말아야.
- ❖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밤을 새워서도 완벽하게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곳 말아야...

###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프로란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 ❖ 프로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 ❖ 프로란 시간과 목표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 ❖ 프로란 성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 ❖ 프로란 성과에 의해서 보수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 ❖ 프로란 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눈에는 맥과 급소가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일하는 사람들 722-6603, 722-6604

BLANK BOXE

## 빈 칸 만

ILLUSTRATION  
 CARTOON  
 PHOTOGRAPH  
 PUBLISH TOTAL DESIGN  
 FINE ART WORK

서울 관악구 신원동 1686-56 대동 B/D 302호  
 전화 838-4350 팩스 838-4350  
 휴대폰 011-769-4350

#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  
 40,000 원  
 \* 반년분(11호)  
 22,000 원